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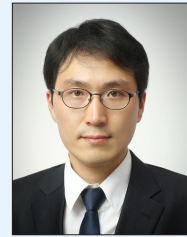
보건복지 ISSUE & FOCUS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337호 (2017-08)
발행일 2017. 7. 3.
ISSN 2092-7117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EL 044)287-8000 FAX 044)287-8052

주관적 안녕의 추이와 함의



정해식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우선희 연구기획조정실 전문연구원

- 정책 목표로 '주관적 안녕'이 등장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 추이와 결정 요인에 대한 깊은 탐색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주관적 안녕 수준은 인식적 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경향도 있어 추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됨.
- 우리 사회에서는 주관적 만족감과 행복도가 2015년에 연령,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일제히 하락한 바 있어 사회적 상황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2016년 소폭 회복됨.
- 2016년 행복도의 회복은 국제 비교의 거시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관대성의 개선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미시적으로는 경제적 요인의 설명력이 적어지는 등 행복도 설명 모델의 설명력이 줄어들고 있음. 즉, 행복도의 집단 간 차이가 희석되고 있음.

1. 들어가며

-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 정책 목표로 등장하면서 그 결정 요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주관적 안녕의 측정 요소로는 행복감(happiness), 삶의 만족감(life satisfaction),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 등이 있음.
 - 그간 여러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물질적 삶의 조건보다 주관적 안녕과 같은 인식적 삶의 질 차원에서 열악하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음.
- 한국 사회의 주관적 안녕 수준이 낮음에 따라 학술적, 정책적으로 다양한 분석과 정책 제언이 이루어지고 있음.
 - 첫째, 객관적 상황 이상으로 불안해하는 원인을 탐색하고 미시적 지원 방안을 설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둘째,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지적하고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주관적 측정 지표는 사회적 상황을 크게 반영하므로 그 추이에 대한 해석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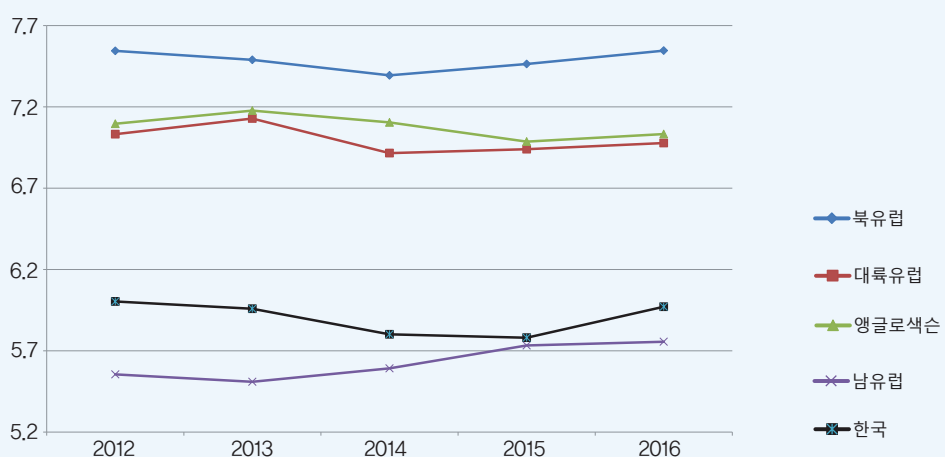
- 사회통합의 측정에는 빈곤, 불평등과 같은 객관적 측정 지표 외에 신뢰 수준, 연대감과 같은 주관적 측정 지표도 활용하고 있음.
- 특히 최근 3년 동안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이 있어 주관적 지표의 변화가 상당하였음. 이에 따라 그 추이를 살펴보기로 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관련 조사 결과 외에도 '갤럽월드폴'의 행복도 조사,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기로 함.
- 이를 통해 주관적 인식 지표를 이용한 해석 등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진단해 보기로 함.

2. 주관적 안녕의 변화 추이

가. 행복도 변화: 유엔 『세계행복보고서』 자료를 이용한 해석

- 『세계행복보고서』에서 '갤럽월드폴'을 이용하여 측정한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2012년 6.00에서 2015년 5.78로 점차 낮아지다 2016년 5.97로 반전하였음.¹⁾
- 2016년 북유럽 4개국은 평균 7.55점, 앵글로색슨 5개국은 평균 7.03점, 대륙유럽 5개국은 6.98점, 남유럽은 5.76점을 보였음.

[그림 1] 주요 국가의 행복도 변화



주: 1) 『세계행복보고서』 본문에는 최근 3년간 응답자 수를 고려한 가중평균치를 보고하고 있으나 위 그림에서는 각 연도별 측정치를 이용함.
 2) 북유럽: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대륙유럽: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앵글로색슨: 아일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남유럽: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자료: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1) 참고로 『세계행복보고서』는 발표하는 행복도의 급변을 피하기 위해 이전 3년 측정치의 가중평균(응답자 수를 고려)값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2013~15년 평균 5.835, 2014~16년 평균 5.838임.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다 나은 삶 지수(BLI: Better Life Index)'는 갤럽월드폴의 연도별 행복도 측정값을 이용함.

○ 지역별로 각국의 행복도는 작게나마 2014년, 2015년의 하락세에서 벗어났으며, 남유럽 지역에서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관적 행복도 상승은 ‘사회적 지지’ 및 ‘관대성’ 개선과 함께 나타났음.

○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사회적 지지, 지난달 기부를 했는지를 고려하여 추정하는 관대성이 2016년에 크게 개선되었음.

○ 그 외 1인당 국내총생산(log), 건강기대수명은 개선되었지만 ‘자유로운 삶의 선택’과 ‘부패인식’은 악화되었음.

- 자유로운 삶의 선택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만족, 부패인식은 정부와 기업 영역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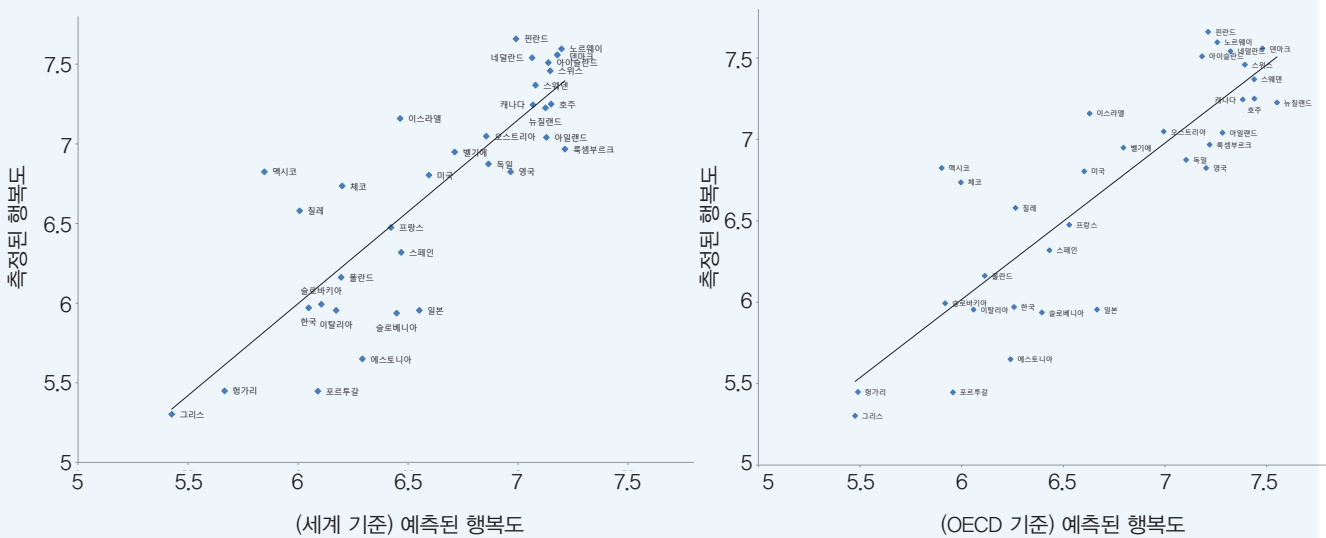
〈표 1〉 행복 설명 요인의 국가별·지역별 차이

구분	1인당 GDP(log)	사회적 지지	건강기대수명	자유로운 삶의 선택	관대성	부패인식
세계 평균	9.237	0.810	62.348	0.728	-0.004	0.752
남유럽	10.302	0.880	71.865	0.655	-0.139	0.906
한국(~2015)	10.368	0.788	73.321	0.637	-0.062	0.817
한국(2016)	10.468	0.811	74.854	0.591	0.015	0.862
OECD 평균	10.446	0.907	70.550	0.802	0.041	0.644

주: OECD 평균, 남유럽, 세계 평균은 2009년부터 2016년의 평균값이며, 한국(~2015)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값임.
자료: 앞과 동일.

○ 행복 설명 요인으로 추정한 예측치보다 높은 행복도를 보이는 국가로는 이스라엘, 체코, 멕시코, 칠레가 있으며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는 행복 예측치도 높고 실제로 행복도도 매우 높음.

[그림 2] OECD 국가의 행복도 예측과 실제



주: 1) 세계 기준으로 예측된 행복도는 모든 국가, 모든 시기를 이용한 행복도 설명 요인의 계수를 이용하여 2016년 값을 추정한 것임. OECD 기준으로 예측된 행복도는 OECD 국가에 한정하여 설명 요인의 계수를 추정한 것임.

2) 행복도 설명 요인 추정에 대해서는 ‘정해식(2016), 행복도 추이와 설명요인(보건복지 ISSUE & FOCUS, 317호)’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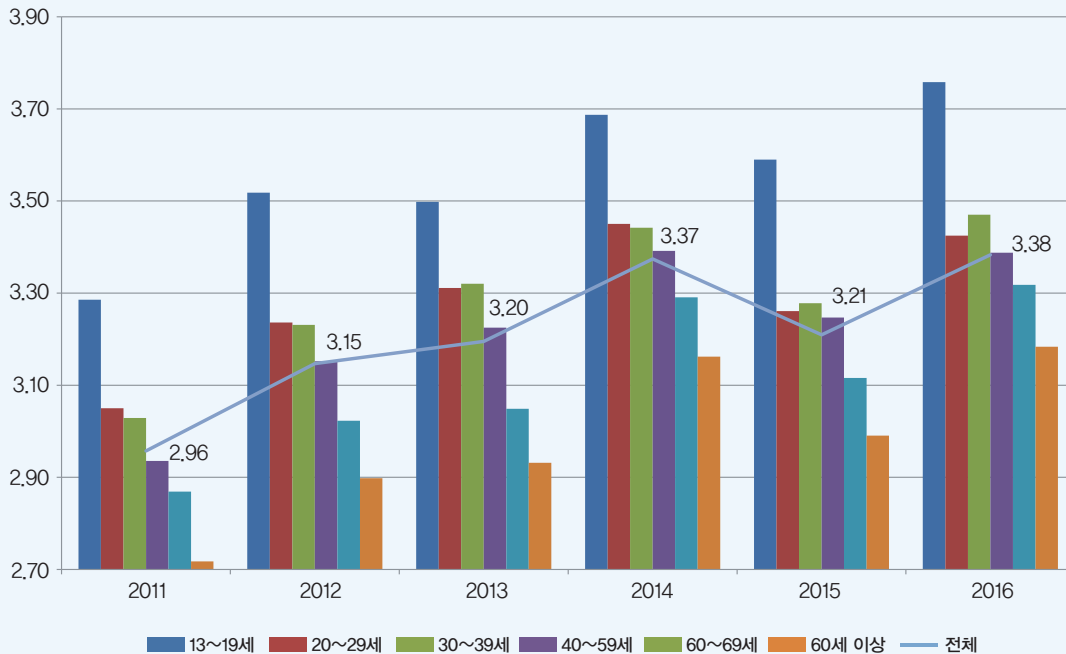
자료: 앞과 동일.

- 우리나라는 2015년에는 추정된 예측치(세계 기준 5.92, OECD 기준 6.18)보다 행복도가 크게 낮았지만, 2016년에는 예측치(세계 기준 6.05, OECD 기준 6.26)에 조금 더 가까운 수준의 행복도를 보였음.

나. 주관적 만족도의 변화: 통계청 '사회조사'를 이용한 해석

-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주관적 만족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높아지다가 2015년 크게 감소하고 2016년 다시 2014년 수준을 회복하였음.
 - 통계청은 매년 5월 중순부터 2주일간 '사회조사'를 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에 '주관적 만족감'의 측정 항목을 매년 포함하고 있음.
 - 2015년 만족감의 급락이 있었으나 2014~2016년 동안에는 세대별 만족감의 큰 변화 없이 일제히 하락, 상승하는 변화를 보였음.²⁾
 - 이런 일괄적 이동 경향은 교육 수준, 가구 소득 수준으로 구분해도 나타남.
- 그러므로 2015년의 만족감 수준 급락에는 각 개인에게 차등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 아닌 모든 집단에 일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림 3] 우리나라 주관적 만족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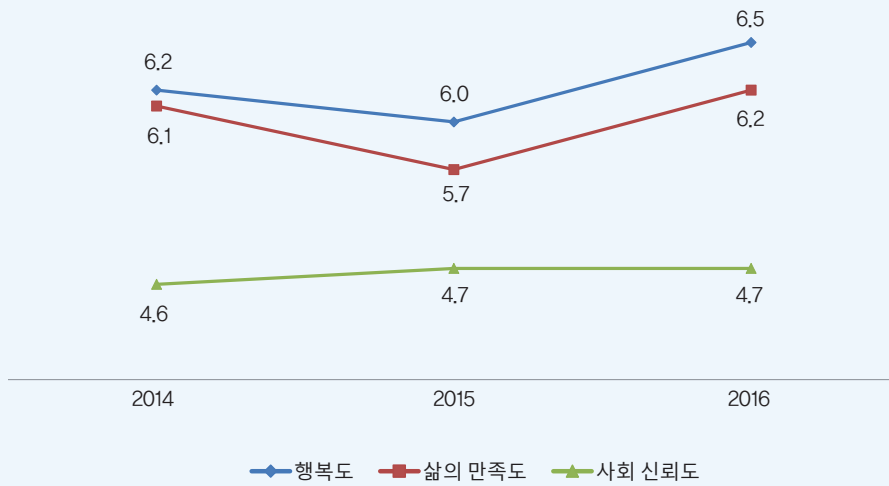
주: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보통), 4(약간 만족), 5(매우 만족)로 측정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2) 20~29세 청년 집단의 만족감은 일부 순위 변화가 있었음.

다. 사회통합 관련 지표의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관련 조사를 이용한 해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에서는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4년부터 매년 사회통합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2014년에 비해 2015년 다소 하락하였다가 2016년 증가하여 2014년 수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반적인 사회 신뢰도는 큰 변화 없이 2014년 4.6점에서 2015년, 2016년 4.7점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4] 행복도, 삶의 만족도와 사회 신뢰도의 변화 추이



주: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 사회 신뢰도는 각각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십니까?’,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0~10점까지 11점 척도로 질문하여 조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2014년 실시),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2015년 실시),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2016년 실시) 원자료를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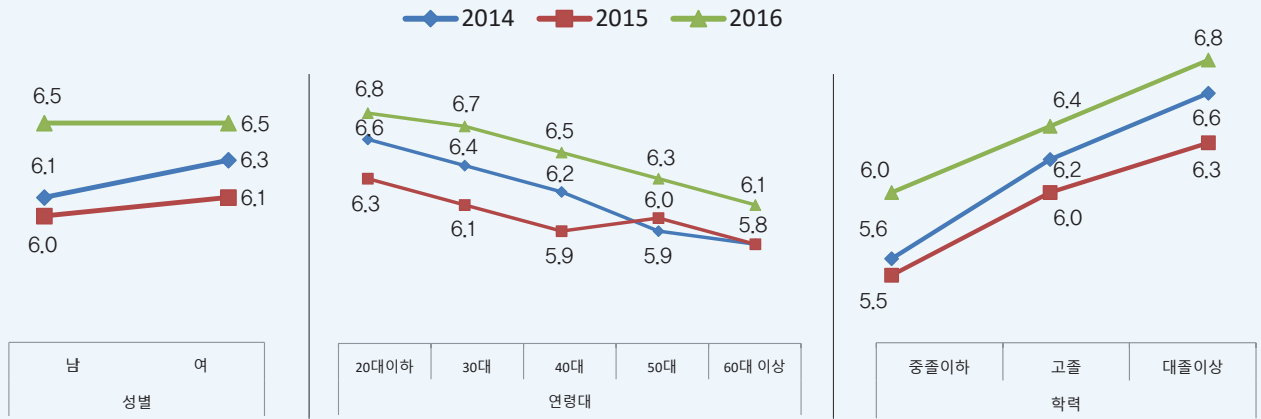
■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도 추이

-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지난 3개년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음.
 - 그러나 여성과 남성의 행복도 격차는 지난 3년간 점차 줄어들어 2016년에는 각각 6.5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음.
 - 2015년에는 50대의 행복도가 주변 연령대보다 높은 특징을 보였으나 그 원인은 명확하지 않음.
 -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도 성과 연령보다 학력에 따른 행복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소득계층에 따른 행복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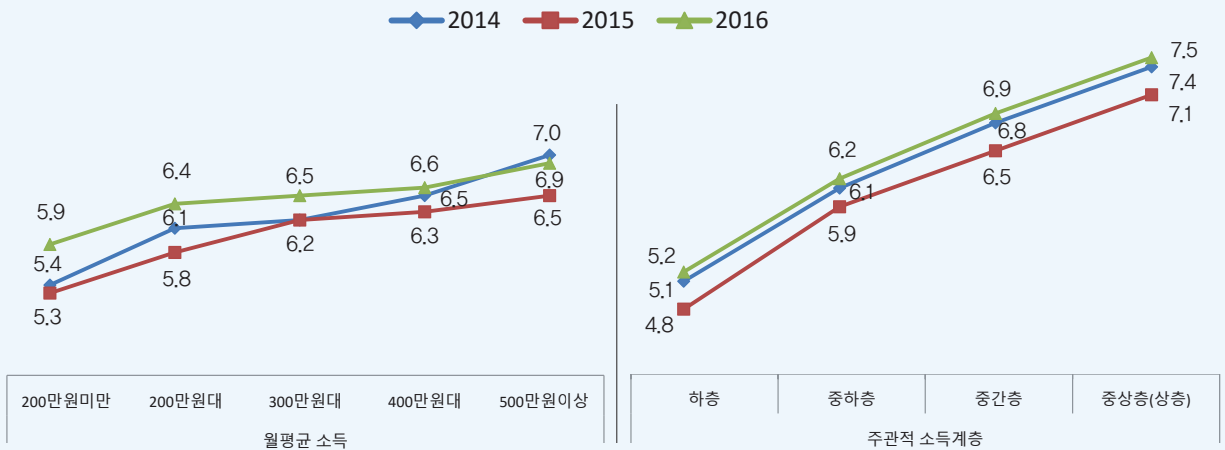
- 3개년 모두 월평균 소득과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게 나타남.
- 다만, 2014년에 비해 2015년, 2016년에는 월평균 소득에 따른 행복도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았음.

[그림 5]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도 추이



자료: 앞과 같음.

[그림 6] 소득계층에 따른 행복도 추이



자료: 앞과 같음.

3.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지난 3년간 나타난 행복도 변화의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행복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사회적 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

○ 독립변수로는 사회 신뢰도, 사회 참여(자원봉사+기부)의 사회통합 요인, 성별, 연령, 교육 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로그 월평균 가구 소득, 주관적 소득계층, 경제활동 상태의 경제적 요인을 투입함.

■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사회 신뢰도가 높고 사회 참여(자원봉사, 기부)가 많을수록 행복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행복도 설명 요인 중 사회 신뢰도의 영향력은 유지되지만 사회 참여 정도의 영향력은 2016년 크게 하락하였음.
-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은 경제적 상황을 통제할 경우 설명력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성별도 2016년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요인 변수의 추정계수와 모델의 설명력 변화도를 기준으로 할 때, 행복도 결정에서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객관적 수준으로서 로그 월평균 가구 소득보다는 주관적 수준인 주관적 소득계층이 행복도 차이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에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의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행복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6년 행복도 설명 모델의 설명력은 낮아졌음.
 - 2015년의 전반적인 행복도 하락이 모든 계층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2016년의 행복도 증가는 체계적 회복이 아님을 의미함.

〈표 2〉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최종 모형	2014년	2015년	2016년
사회 신뢰도		0.297 ***	0.297 ***	0.297 ***	0.308 ***	0.299 ***	0.276 ***	0.270 ***	0.281 ***	0.253 ***	0.279 ***
사회 참여			0.258 ***	0.257 ***	0.246 ***	0.176 ***	0.143 ***	0.142 ***	0.146 ***	0.187 ***	0.080 **
성별(남성=0)				0.123 ***	0.162 ***	0.197 ***	0.167 ***	0.168 ***	0.299 ***	0.140 *	0.063
연령					-0.019 ***	-0.008 ***	-0.012 ***	-0.013 ***	-0.018 ***	-0.007 ***	-0.015 ***
학력 (중졸 이하 =0)	고졸					-0.037	0.042				
	대졸 이상					0.137 *	0.137 *				
로그 월평균 가구 소득						0.507 ***					
주관적 소득계층							0.637 ***	0.611 ***	0.633 ***	0.614 ***	0.565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임금 근로자=0)	비정규 임금근로자							-0.425 ***	-0.506 ***	-0.373 ***	-0.416 ***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0.066	-0.246 *	0.023	-0.005
	실업자							-0.918 ***	-1.203 ***	-0.825 ***	-0.754 ***
	비경제활동							-0.148 **	-0.351 ***	-0.141	0.053
조사 연도 (2014=0) 기타	2015	-0.227 ***	-0.199 ***	-0.199 ***	-0.203 ***	-0.239 ***	-0.260 ***	-0.258 ***			
	2016	0.252 ***	0.299 ***	0.299 ***	0.296 ***	0.187 ***	0.155 ***	0.145 ***			
상수		4.835 ***	4.624 ***	4.441 ***	5.178 ***	1.896 ***	3.589 ***	3.979 ***	4.021 ***	3.502 ***	4.408 ***
사례 수		11,357	11,357	11,357	11,357	11,289	11,352	11,352	3,631	4,052	3,669
adj. R-sq		0.082	0.101	0.102	0.120	0.148	0.185	0.195	0.200	0.197	0.17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3개년 원자료.

4. 마치며

- 주관적 안녕과 같은 인식 수준의 측정 지표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행복도, 주관적 만족도는 2015년 크게 하락하였음.
 - 이때는 전년도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 국민적 실망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음. 2014~2016년의 조사 자료를 분석하면 2015년의 행복도 하락은 모든 집단에서 상당히 일관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2014년의 사회적 혼란이 사회조사 결과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갤럽월드폴'의 행복도 측정은 2014년에 전년 대비 급락하였고,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2014년에 오히려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관련 조사는 2014년부터 실시되어 이전 연도와의 경향 비교가 불가함.
 - 반대로, 2016년에는 뚜렷한 사회적 상황 개선은 없는 상태에서 행복도는 상승하고 행복도 추정 모델의 설명력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음.
- 그러므로 주관적 수준에서 측정되는 사회지표에 대해서는 그 배경을 함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갤럽월드폴'을 이용하여 측정한 행복도가 높아졌고, 이것이 6월 중 OECD의 BLI 지표에 반영되면 '발표'되는 한국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관련 조사에서의 주관적 안녕 수준 측정 결과도 유사함.
 - 이때, 단순히 수치상 개선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개선 배경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특히 행복도 변화의 추세 분석에서는 2015년과 같이 행복도가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해석도 함께 할 필요가 있음.
 - 주관적 수준에서 측정되는 각종 사회지표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
 - 한편, 주관적 측정 지표의 급변에 대한 집단별 차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정해식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 우선희 연구기획조정실 전문연구위원
문의 044-287-825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kihasa.re.kr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Policy